

임진왜란의 기억방식 연구

A Study of the Way to Remember Imjin War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임진왜란이 기억의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되는 방식을 사관, 신하, 작가, 영화감독의 텍스트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변주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역사적 사건이 기억의 범주에서 돋보이고 은폐됨에 따라 역사의 진실은 당시와 현재에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I. 서론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기억의 투쟁이며, 기억의 정치학이라 할 것이다. 기억의 정치학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기억의 주체이며, 무엇을 기억의 범주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1]. 역사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호명하기에 스토리뱅크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즉,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역사라는 창고에서 찾아내어 소설, 영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각색한다. 따라서 문자로 기록된 문자 역사는 다양한 기억방식에 따라 변용된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현대사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임진왜란이 기억의 주체인 사관, 신하, 작가, 감독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는 기억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변용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일별하자면, 먼저 정두희는 조선왕조 시대부터 임진왜란의 실상은 항상 은폐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쟁의 참상은 물론이고 왜적이 침입했을 때, 왕조와 지도층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순신은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된다[2]. 이성혁은 임진왜란을 다룬 김훈의 <칼의 노래>가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역사를 재료를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었다고 보았다[3]. 정건희는 김훈의 역사소설이 기존의 역사소설 유형론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비역사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내세운다[4]. 영화 <명량>을 두고 김기봉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으로 귀환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으나[5], 한영현은 이순신이라는 개인적 영웅보다는 이름 없는 격군을 통해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6].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기반 위에서 임진왜란의 다양한 기억방식을 연구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모리스 알박스의 이론에 따라 개인이 아닌 집단의 시각에서 기술할 것이다.

II. 본론

1. 사관의 관점에서 기술한 임진왜란의 기억방식

<선조실록> 30년 2월 1일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통제사 이순신의 하옥을 명하고, 원균으로 이순신을 대신하게 한다. 그 원인은 남해안 지역에 몰려 있던 왜적을 소탕하라는 선조의 명을 이순신이 어겼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복병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 하에 적과 싸우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원균이 한산도에서 패전하면서 생겼다.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수군통제사 자리에 복직시키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중책을 맡긴다. 이는 왕뿐만 아니라 왕조의 권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임진왜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한양과 평양성에서 파천을 감행한 마당에 이순신에게 전란을 막을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임금의 위신이 서지 않은 계책인 것이다. 사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사관은 이순신을 해임하지 않았다면, 정유재란의 난리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조실록> 31년 무술 11월 무신조에서 말하였다. 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영웅으로 묘사된다. 당시 민중도 그를 난세의 영웅으로, 충신으로 기억한다. 이순신 자신은 영웅으로 보지 않았고, 왜적을 물리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쓴 <난중일기> 정유년(1597) 4월 1일자 기록을 보면, 이순신은 감옥을 나와 사람들을 만난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홍악한 자(원균)의 일은 기만함이 심한데도 임금이 살피지 못하니 나라일을 어찌하겠는가.”[7]에서 알 수 있듯이 선조의 무능함에 대한 당시 체찰사 이원익의 말과 사관의 기록은 일치한다.

2. 신하 유성룡의 관점에서 본 임진왜란의 기억방식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거나 재편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 고대의 나당전쟁, 중세의 대몽전쟁, 근세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근대의 한국전쟁이 그러하다. 국가와 민족에 기초한 전쟁의 기억은 현재의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현재의 국민국가들이 분열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조 때의 신하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징비록>을 남겼다. 이 책은 임진왜란을 기억함에 있어서 소중한 역사기록이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다. 유성룡의 『징비록』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전쟁 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된 경세서이다. 유성룡은 이 책에서 이순신을 자신이 발탁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낸다. 책의 전반부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조정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선조의 무능이자 신하와 장수의 무능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전란 초기의 역사적 패배를 기록물에 의거하여 밝힌 것이다. 전란의 반전은 이 책 후반부에 기록된 이순신의 활약으로 알 수 있다. 이순신의 승리는 유성룡의 승리이듯 기억의 주체인 유성룡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두고 임진왜란의 기억을 재구성한다[8].

3. 소설가 김훈이 본 임진왜란의 기억방식

역사소설은 작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거시적 관점을 취하느냐 미시적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달리 기술된다. 전자가 G. 루카치의 관점에서 총체성을 중시한다면, 후자는 신역사주의에 따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일상담론을 주로 다룬다. 소설가 김훈은 <칼의 노래>를 통해 후자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김훈이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방식은 미시사에 기초해 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총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임진왜란을 이순신의 입장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훈의 역사소설에는 영화 <명량>과 달리 백성이 타자화되고 있다. 백성과 격군은 이순신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배경이 될 뿐, 역사의 주제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순신의 오감을 통해 전란의 비극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임진왜란의 전모를 알기보다는 이순신 눈에 비친 정유재란 당시의 권력의 허망함을 알 수 있다. 김훈은 임진왜란의 특수성 대신에 전쟁의 일반성만을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김훈은 이순신의 내적 독백을 통해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었지만, 임진왜란에 대한 당대 지식인과 백성들의 사유는 배제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소설로서 <칼의 노래>는 기존 역사소설 장르의 과격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에 큰 상처를 남긴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다. 임진왜란이 영웅 이순신의 승전으로만 기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순신을 일상인으로만 다루는 것도 올바른 기억방식이 될 수 없다. 김훈의 <칼의 노래>가 신역사주의 관점에 기초해 서사를 구성했다면, 이순신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백성과 격군, 더 나아가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전란의 비극성을 다뤄야 했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인들의 수평적 결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영화감독 김한민이 본 임진왜란의 기억방식

역사가가 현실의 역사를 서술한다면, 영화감독은 꿈꾸는 역사를 제작한다. 김한민 감독의 관점에서 본 임진왜란은 왕이 부재한 공간 속에 이순신이 백성을 구하고, 백성이 이순신을 구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은 영웅 이순신이 아닌 군중과 함께하는 이순신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가 원하는 이순신의 이미지는 12척의 배로 왜선 330척을 격파하는 영웅의 이미지가 아니다. 고뇌와 천행(天幸)을 바라고 백성의 도움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인간 이순신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방식은 과거에 실제 그러했던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허구에 가깝다. <명량>(2014)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라는 콘텍스트에 위에 임진왜란을 재해석한 것이다. 탈근대의 경계에 선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명량>이 보여주는 미덕은 국가와 민족의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도자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것은 백성과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이순신이다. 이 영화의 아쉬움은 해전이 압도적이어서 백성과 격군의 이미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일상적 관점에서 자세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III. 결론

본고에서는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네 가지 관점을 기술하였다. 기억의 주체인 사관, 신하, 작가, 영화감독에 따라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다르게 해석됨을 알 수 있다. 권력자는 은폐의 방식으로, 예술가는 일상의 시각으로 임진왜란을 기억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주체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용되었다는 사실이다.

■ 참고 문헌 ■

- [1]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2006.
- [2]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3] 이성혁, 김훈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파시즘 문제에 대한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46집, 2014.
- [4] 정건희, 김훈 역사소설의 비역사성, 관악어문연구, 36집, 2011.
- [5] 김기봉, 『히스토리야, 쿠오바디스』, 서해문집, 2016.
- [6] 한영현, 영웅의 대중적 호출과 역사적 상상력: 영화 <명량>, 현대영화연구, 20호, 2015.
- [7] 이순신, 노승석 역, 『난중일기』, 여해, 2016.
- [8] 정출현, 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 사설의 기억 또는 기억의 서사, 한문학보, 제 21집, 2009.